

본당(공동체) 시노드 모임 안내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진주교 서울대교구

목 차

1. 본당(공동체) 시노드 모임 준비 세부 계획	2
2.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 진행 양식	4
2.1. 진행 단계	4
2.2.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을 위한 안내	5
2.3.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 진행 예시안	7
〈첫번째 모임〉	7
〈두번째 모임〉	17
〈세번째 모임〉	24
별첨1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 제출 양식	30
별첨2 시작전례와 마침전례 예시안	32
별첨3 근본질문과 10가지 핵심주제와 관련된 질문 종합	34



1. 본당(공동체) 시노드 모임 준비 세부 계획

■ 교구 단계 본당 시노드 모임 운영팀 구성

- 본당 책임자인 주임신부님은 운영팀을 구성합니다.
 - ☞ 시노드 정신에 따라 평신도, 남성/여성, 수도자를 포함

■ 교구 단계 본당 시노드 모임 기획

- 본당 책임자와 운영팀은 교구 단계 본당 시노드 모임을 기획합니다.
 - ☞ 홍보 ① 방법: 강론, 공지사항, 현수막, 포스터, 특강 등
 - ② 활용자료: 가톨릭평화방송 · 문화홍보국 영상자료, 교구 시노드 홈페이지 등
 - ☞ 일정(본당 및 공동체의 시노드 기간 설정과 소그룹 모임 횟수)
 - ☞ 참가 인원 규모(그룹당 6-7명)
 - ☞ 구성된 소그룹에 번호 지정(홈페이지 입력 시 각 소그룹은 번호로 분류됩니다)
 - ☞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하느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방안을 마련
 - ☞ 시작전례, 마침전례(기존의 미사시간을 활용, 특별한 전례 마련)
 - ☞ 소그룹 모임 진행을 위한 코디네이터(소그룹 모임 봉사자) 선정
 - ☞ 제공된 교육 및 홍보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운영팀 및 소그룹 모임 봉사자 교육

※ 본당 사정에 따라 다방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룹 조직 및 시노드 모임 기획

- 운영팀은 첫모임 2-3주 전에 참가자들에게 성찰 자료를 전달합니다.
 - ☞ 참가자들이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사전에 시노드 모임에 대해 이해하고, 각자 그리고 공동체가 신앙생활과 삶에서 경험한 '함께 걷기 체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전달
- 소그룹에서는 모임이 모두 끝이 나면 정리된 내용을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https://www.synod.or.kr>) 「의견제안」란에 본당(단체)과 그룹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 후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 본당 운영팀은 본당 내 모든 소그룹 모임이 끝이 나면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취합하고 식별하여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https://www.synod.or.kr>) 「의견제안」 → 「본당 및 단체 종합」란에 최종 제안을 입력합니다.



2.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 진행 양식

2.1. 진행 단계

진행 단계		내용
1단계	성찰하기	개인별 '시노드'(함께 걷기) 경험 떠올리기
2단계	나누기	시노드 경험 모으기
3단계	생각하고 되새기기	성령과 함께 바라보기
4단계	묵상하기	10가지 핵심주제로 재해석하기
5단계	제안하기	시노드 교회를 위해 제안하기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번에 열리는 시노드에 3년의 긴 여정 속에서 하느님 백성과 하느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식별하는 단계를 차례로 밟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삶과 경험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여 알아듣고, 이를 담대하게 교회 공동체와 나누도록 부르십니다.

2.2.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을 위한 안내

- 소요 시간: 1시간 30분~2시간
- 참가자 수: 6~7명
- 테이블에 십자가상과 초, 성경을 안치해 둡니다.
- 테이블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 앉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 진행자 1명, 서기 1명을 미리 정합니다.
- 진행자는 '경청과 대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체 과정을 숙지합니다. 영성적 대화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 서기는 소그룹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첨부된 양식지에 잘 정리하여 기록합니다. 새롭게 얻은 통찰을 비롯하여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도 세세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 참가자는 아래 경청을 위한 자세를 숙지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경청과 대화를 위한 자세

1. 이 모임은 토론이나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영성적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에 집중합니다.
2. 이 모임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시도록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이야기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3. 말하는 용기와 더불어 경청하는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4.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 등을 가능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5. 들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합니다.
6.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차례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집중합니다.
7.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읍니다. 그가 하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의 목소리의 톤과 느낌까지 공감하고자 노력합니다.
8. 다른 이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닙니다.
9.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편안함을 찾는 태도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읍니다.
10. 함께 배우며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11.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12. 잘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에만 머물러서 낙담과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편람 2.3.-4.; '영성적 대화' 자료 참조)

2.3.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 진행 예시안¹⁾



첫번째 모임

1. 시작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1) 3회 모임을 기준으로 만든 예시안으로 본당(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횡수를 늘릴 수 있으며, <별첨3> 10
가지 핵심주제에 관련한 질문을 정해진 횡수에 맞게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도입



- 잠시 그림을 바라봅니다. 이번 시노드의 공식 로고에 있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가 그림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공식 로고 설명

지혜와 빛으로 충만한 커다랗고 위엄 있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심오한 생명력과 희망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태양처럼 빛나는 성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이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과 같이 가로로 뻗은 나뭇가지들은 성령을 암시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노드’(synod)라는 단어의 어원이 의미하는 ‘함께 걷기’를 직접 보여 줍니다. 하느님 백성은 이 생명의 나무가 그들에게 불어 넣어 준 그 동일한 힘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 15명의 실루엣은, 여러 세대와 출신으로 삶의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인류 전체를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양한 밝은 색채들로 강조되며, 이는 기쁨의 표징입니다. 같은 바탕 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곧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어린이, 평신도와 수도자, 부모와 부부와 독신자, 건강한 이와 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위계도 없습니다. 주교와 수녀가 이들의 선두에 서지 않고,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길을 열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3. 나누고 듣기

1) 성찰하기

※ 근본질문을 떠올리며 이와 관련한 나의 신앙체험을 3분 동안 묵상합니다.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체험을 통해 어떤 기쁨을 얻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성찰해 봅니다.]

2) 나누기

※ 각자 2-3분간 개인 묵상의 내용과 열매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룹 전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살핍니다.]

3) 생각하기 [3분]

※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느끼거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4) 되새기기

※ 개인의 체험 나눔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과 침묵의 시간에 마음을 울린 것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 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생각한 것,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묵상하기 [2분]

※ 10가지 핵심주제 가운데 이번 모임 회차에 해당되는 아래의 주제들의 질문들을 살펴보며, 오늘 기도와 경청을 통해 경험한 것을 묵상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상황에 따라서 14p에 나오는 질문들을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 **여정의 동반:** 내가 성당에 나왔을 때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경청:** 우리의 교구(본당, 구역·반)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말하기:**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져 결실을 맺었다고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 **교회와 사회의 대화:** 주변의 이웃들이 성당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비판, 칭찬, 무관심 등)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당에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6) 제안하기

- ※ 오늘 묵상하고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본당(공동체)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 내용을 나눕니다.

4. 공동체(소그룹)에서 제출할 내용 정리

- ※ 종합되고 결정된 내용을 <별첨1> 30p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5. 마침 기도

[아래의 기도를 바치거나,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짧게 돌아가며 바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러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이 시노드의 체험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잃게 되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오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주교시노드 개막 연설” 중 기도, 2021년 10월 9일)

① 여정의 동반자

- 본당 관할 지역 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본당 내 요양(병)원은 얼마나 있나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당이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 본당 관할 지역 내에 개신교, 불교 등 다른 종교 시설은 얼마나 있나요?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무언가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본당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 사목회 임원 또는 기타 단체의 봉사자로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선발될 때 그 덕목이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 본당에서 수녀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② 경청

-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은 신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요?
- 본당 운영과 관련해서 신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나요?
- 사목회, 구역·반 모임, 단체 모임 등에서 단체장들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마련되어져 있나요? 있다면 시간과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어른으로서 본당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기적인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나요?
- 본당 신부님, 수녀님과 면담을 요청했거나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

가요? 신청부터 면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편안하셨나요? 그리고 면담은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 본당 사목자로서 신부님, 수녀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 본당 신부님은 신자들의 의견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으시나요?

③ 말하기

- 본당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가톨릭적 시각과 판단을 담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사목회를 비롯한 본당의 여러 단체나 모임 등에서 본당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나요?
- 평신도들이 본당 운영을 비롯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본당에 마련되어 있나요?
- 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신문은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언론매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④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 교구와 본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적으로 느끼기에 교구는 본당의 상위기관인가요? 아니면 본당의 협력기관인가요?
- 교구장의 사목교서, 교구의 사목지침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것들이 본당 사목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또는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 가톨릭교회 내의 이단(베이사이드, 나주성모 등), 가톨릭교회 밖의 이단(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회 계열, 통일교, 전능신교, 마음수련 등)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수도 공동체(남·여 수도회)를 방문하거나 그들의 활동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본당이 지역 공동체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본당 관할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 요양시설, 학교 등과 함께 하면서 본당이 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교회의 대사회적 참여 및 활동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반대하시나요?



1. 시작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2. 인사

[간단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3. 나누고 듣기

1) 성찰하기

※ 지난 모임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체험을 떠올려 보고, 어떤 기쁨을 얻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성찰해 봅니다.

2) 나누기

※ 각자 2-3분간 개인 묵상의 내용과 열매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룹 전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살핍니다.]

3) 생각하기 [3분]

※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느끼거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4) 되새기기

※ 개인의 체험 나눔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과 침묵의 시간에 마음을 울린 것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 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생각한 것,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묵상하기 [2분]

※ 10가지 핵심주제 가운데 이번 모임 회차에 해당되는 아래의 주제들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오늘 기도와 경청을 통해 경험한 것을 묵상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상황에 따라서 22p에 나오는 질문들을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 **거행:** 미사 안에서 기쁨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분심이 든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도덕적 윤리적 행동 판단에 하느님 말씀, 가톨릭 교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공동책임:** 본당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성당의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 **교회 일치:**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권한과 참여:** 우리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성당 활동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6) 제안하기

- ※ 오늘 묵상하고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본당(공동체)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 내용을 나눕니다.

4. 공동체(소그룹)에서 제출할 내용 정리

- ※ 종합되고 결정된 내용을 <별첨1> 30p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5. 마침 기도

[아래의 기도를 바치거나,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짧게 돌아가며 바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이 시노드의 체험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잃게 되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오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주교시노드 개막 연설” 중 기도, 2021년 10월 9일)

① 거행

- 본당의 미사와 기타 신심 행위는 신자들의 필요에 부합하게끔 알맞은 시간과 적절한 대수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본당의 미사와 기타 신심 행위는 전례시기에 맞춰서 여러 요소들(음악, 상징 등)이 풍성하게 봉헌되고 있나요?
- 본당의 성시간, 성모의 밤, 순교자의 밤, 성모 신심 미사 등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 전례 봉사(전례부, 제대회, 헌화회, 복사단), 성가대 활동을 제외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본당의 미사와 기타 신심 행위를 신자로서 의무감에 따라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원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② 공동 사명을 위한 공동책임

- 선교활동을 위해서 개인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 개인 및 본당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교회 공동체가 인권, 환경, 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 및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당 신부님이 강론 및 여러 자리에서 인권, 환경, 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당 내 장애인을 위한 우선적인 배려가 마련되어 있나요?
- 미사 및 본당의 제반 활동에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따로 모은 뒤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③ 교회 일치

-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와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와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와 대화하고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가 이웃 종교에 방문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피정, 나눔, 강의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 내 이웃 종교들과 합동 바자회, 합동 요양병원 봉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동으로 이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④ 권한과 참여

- 평신도는 사목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목의 협력자이자 동반자인가요? 아니면 사목의 주체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임을 지는 사람과 결정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당 내 여러 분과 및 단체의 단체장은 이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또 행사하고 있나요? 분과장 및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주일미사 참례, 교무금 책정 등 신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책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본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한 해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토론 및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져 있나요? 있다면 참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때 분위기는 주로 사목자나 총회장의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나요?
- 본당 사목회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1. 시작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2. 인사

[간단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3. 나누고 듣기

1) 성찰하기

※ 본당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떠올려 보고, 어떤 기쁨을 얻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성찰해 봅니다.

2) 나누기

※ 각자 2-3분간 개인 묵상의 내용과 열매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룹 전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살핍니다.]

3) 생각하기 [3분]

※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느끼거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4) 되새기기

※ 개인의 체험 나눔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과 침묵의 시간에 마음을 올린 것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 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생각한 것,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묵상하기 [2분]

※ 10가지 핵심주제 가운데 이번 모임 회차에 해당되는 아래의 주제들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오늘 기도와 경청을 통해 경험한 것을 묵상합니다.

[소그룹 모임의 상황에 따라서 29p에 나오는 질문들을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 식별과 결정: 공동체의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판단해서 결정에 이르고 그것이 다시 본당 전체에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양성: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시노드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걸림돌(문화, 행동, 생각 등)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 다양한 구성원(연령별, 성별, 본당)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있습니까? 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나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6) 제안하기

- ※ 오늘 묵상하고 나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본당(공동체)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 내용을 나눕니다.

4. 공동체(소그룹)에서 제출할 내용 정리

- ※ 종합되고 결정된 내용을 <별첨1> 30p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5. 마침 기도

[아래의 기도를 바치거나,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짧게 돌아가며 바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이 시노드의 체험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잃게 되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오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주교시노드 개막 연설” 중 기도, 2021년 10월 9일)

① 식별과 결정

- 본당에서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본당 사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를 따르셨나요?
- 현재 본당 신부님의 모습은 관리자, 책임자, 사목자 중 어떤 모습에 가까운가요?
- 개인(평신도) 및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당 사목회를 비롯해서 산하 단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가 아니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바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기도 문화가 본당 산하에 마련되어져 있나요?

②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

-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등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을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신가요?
- 하느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본당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제반 단체에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선택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채택되었는데도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 본당 내 모임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별첨1

시노드 모임(소그룹 모임) 제출 양식

1. 기본정보

1) 공동체 분류: _____ 본당 _____ 구역 _____ 반 또는 단체: _____
소그룹 번호: _____

2) 모임 일시 및 장소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시간: _____ , 장소: _____
모임 회차(_____ 번 중 _____ 번)

3) 참가자

· 코디네이터(소그룹 봉사자): _____ , 서기: _____
· 참가 인원 _____ 명(전체 구성원: _____ 명)

이름(세례명)	성별	연령	비고

2. 참가자들은 모임 과정 중 성찰하기와 관련하여 어떤 체험을 경험하였고 서로 나누었습니까?

3. 다른 참가자들과 경청과 대화를 통해 감동을 준 특별한 이야기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4. 10가지 핵심주제 가운데 우리 그룹이 논의한 주제와 질문은 어떤 것이었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5. (시노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교회의 현실에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성령께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본당(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6. 오늘의 경청과 대화를 통해 교회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시노드 교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별첨2 시작전례와 마침전례 예시안

- 전례를 통해 본당 공동체의 시노드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미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본당의 시노드를 위한 미사를 따로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당에서 시노드를 말씀 전례로 시작하고 마칠 때〉

시작전례

시작성가: 22번(천지 생기기 전)

독서: 사도 2,14-21(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화답송: 46번(사랑의 송가)

복음: 루카 24,13-35(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강론

주님의 기도

강복

마침성가: 202번(구세주의 성심이여)

마침전례

시작성가: 39번(하나되게 하소서)

독서: 로마 6,1-14(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화답송: 62번(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복음: 요한 17,6-19(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강론

주님의 기도

강 복

마침성가: 31번(이 크신 모든 은혜)

〈본당에서 시노드를 미사로 시작하고 마칠 때〉

- 본당에서 미사로 시노드를 시작하고 마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미사 형식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당일의 전례 독서와 기도문

또는

② 기원 미사

고유기도문(『로마 미사 경본』, 1199면)

기원 미사 감사 기도2(『로마 미사 경본』, 758면)

전례 독서(기원 미사, 1. 거룩한 교회 12.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1독서: 스바 3,16-20(『미사 독서Ⅳ』, 515면)

2독서: 1코린 1,10-13(『미사 독서Ⅳ』, 516면)

복 음: 요한 17,11c-19(『미사 독서Ⅳ』, 528면)

별첨3 근본질문과 10가지 핵심주제와 관련된 질문 종합

근본질문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10가지 핵심주제와 관련된 질문

① 여정의 동반자

- 내가 성당에 나왔을 때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본당 관할 지역 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방문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본당 내 요양(병)원은 얼마나 있나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당이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 본당 관할 지역 내에 개신교, 불교 등 다른 종교 시설은 얼마나 있나요?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무언가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본당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 사목회 임원 또는 기타 단체의 봉사자로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선발될 때 그 덕목이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 본당에서 수녀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② 경청

- 우리의 교구(본당, 구역·반)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은 신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요?

- 본당 운영과 관련해서 신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나요?

- 사목회, 구역·반 모임, 단체 모임 등에서 단체장들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마련되어져 있나요? 있다면 시간과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어른으로서 본당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기적인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나요?

- 본당 신부님, 수녀님과 면담을 요청했거나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청부터 면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편안하셨나요? 그리고 면담은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 본당 사목자로서 신부님, 수녀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 본당 신부님은 신자들의 의견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들으시나요?

③ 말하기

-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져 결실을 맺었다고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 본당 신부님께서서는 강론 중에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가톨릭적 시각

과 판단을 담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사목회를 비롯한 본당의 여러 단체나 모임 등에서 본당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나요?
- 평신도들이 본당 운영을 비롯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본당에 마련되어 있나요?
- 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신문은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언론매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면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④ 거행

- **미사 안에서 기쁨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분심이 든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도덕적 윤리적 행동 판단에 하느님 말씀, 가톨릭 교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본당의 미사와 기타 신심 행위는 신자들의 필요에 부합하게끔 알맞은 시간과 적절한 대수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본당의 미사와 기타 신심 행위는 전례시기에 맞춰서 여러 요소들(음악, 상징 등)이 풍성하게 봉헌되고 있나요?
- 본당의 성시간, 성모의 밤, 순교자의 밤, 성모 신심 미사 등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 전례 봉사(전례부, 제대회, 헌화회, 복사단), 성가대 활동을 제외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본당의 미사와 기타 신심 행위를 신자로서 의무감에 따라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원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⑤ 공동 사명을 위한 공동책임

- 본당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성당의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 선교활동을 위해서 개인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보셨나요?
-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 개인 및 본당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교회 공동체가 인권, 환경, 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 및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당 신부님이 강론 및 여러 자리에서 인권, 환경, 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당 내 장애인을 위한 우선적인 배려가 마련되어 있나요?
- 미사 및 본당의 제반 활동에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따로 모은 뒤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⑥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 주변의 이웃들이 성당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비판, 칭찬, 무관심 등) 우리 본당에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 교구와 본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느끼기에 교구는 본당의 상위기관인가요? 아니면 본당의 협력기관인가요?
- 교구장의 사목교서, 교구의 사목지침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것들이 본당 사목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또는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 가톨릭교회 내의 이단(베이사이드, 나주성모 등), 가톨릭교회 밖의 이단(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회 계열, 통일교, 전능신교, 마음수련

등)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수도 공동체(남·여 수도회)를 방문하거나 그들의 활동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본당이 지역 공동체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본당 관할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 요양시설, 학교 등과 함께 하면서 본당이 복음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교회의 대사회적 참여 및 활동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반대하시나요?

⑦ 교회 일치

-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와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와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 성공회, 동방정교회, 개신교와 대화하고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가 이웃 종교에 방문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피정, 나눔, 강의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 내 이웃 종교들과 합동 바자회, 합동 요양병원 봉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동으로 이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⑧ 권한과 참여

- 우리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성당 활동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 평신도는 사목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목의 협력자이자 동반자인가요? 아니면 사목의 주체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임을 지는 사람과 결정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당 내 여러 분과 및 단체의 단체장은 이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고 또 행사하고 있나요? 분과장 및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주일미사 참례, 교무금 책정 등 신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책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본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한 해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토론 및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져 있나요? 있다면 참여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때 분위기는 주로 사목자나 총회장의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나요?
- 본당 사목회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⑨ 식별과 결정

- 공동체의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판단해서 결정에 이르고 그것이 다시 본당 전체에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 본당에서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본당 사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를 따르셨나요?
- 현재 본당 신부님의 모습은 관리자, 책임자, 사목자 중 어떤 모습에 가

까운가요?

- 개인(평신도) 및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본당 사목회를 비롯해서 산하 단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가 아니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바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기도 문화가 본당 산하에 마련되어져 있나요?

⑩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

-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양성: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시노드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걸림돌(문화, 행동, 생각 등)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 다양한 구성원(연령별, 성별, 본당)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있습니까? 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나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 등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 본당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을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신가요?
- 하느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본당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제반 단체에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선택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채택되었는데도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 본당 내 모임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서울대교구 시노드 공식 홈페이지

www.synod.or.kr